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후 면역력이 6개월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염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유증상 환자들의 T세포(면역세포) 반응이 무증상 환자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높은 T세포 반응이 코로나19 재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연구를 진행한 영국 연구팀은 코로나19 면역에 대해 알아가야 할 것이 아직 많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재감염의 위험성은 없어지는지, 또 면역력은 얼마나 지속되는 지가 핵심 연구 과제다.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인체 감염을 막는 항체는 감염 10일 정도 이후에 생성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코로나19: '면역 여권'이 '항체 금수저' 계층 만들까?

연구진은 또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세포성 면역반응'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면역력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영국 공중보건국과 버밍엄 대학, NIHR 맨체스터 의학 연구 센터, 영국 코로나바이러스 면역학 컨소시엄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치거나 학술지에 발표된 바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T세포가 항체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SARS-CoV-2 바이러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SARS-CoV-2 바이러스

공중 보건국 소속 전염병 학자 샤메즈 라다니 박사는 "초기 연구 결과 T세포 반응이 항체 반응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면역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밍엄 대학의 폴 모스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감염 6개월 뒤에도 세포성 면역 반응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낸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또는 4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23명의 남성과 77명의 여성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만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

연구진은 유증상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활발한 T세포 반응이 재감염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무증상 환자는 상당한 수준의 면역 반응 없이도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모스 교수는 "앞으로 증상이 있던 환자들의 재감염률이 실제로 더 낮은지 확인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설명,

코로나19, 재감염 가능할까?

관련 기사 더 보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 항체면역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코로나19: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후 면역력이 6개월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염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유증상 환자들의 T세포(면역세포) 반응이 무증상 환자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높은 T세포 반응이 코로나19 재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연구를 진행한 영국 연구팀은 코로나19 면역에 대해 알아가야 할 것이 아직 많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재감염의 위험성은 없어지는지, 또 면역력은 얼마나 지속되는 지가 핵심 연구 과제다.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인체 감염을 막는 항체는 감염 10일 정도 이후에 생성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코로나19: '면역 여권'이 '항체 금수저' 계층 만들까?

연구진은 또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세포성 면역반응'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면역력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영국 공중보건국과 버밍엄 대학, NIHR 맨체스터 의학 연구 센터, 영국 코로나바이러스 면역학 컨소시엄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치거나 학술지에 발표된 바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T세포가 항체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SARS-CoV-2 바이러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SARS-CoV-2 바이러스

공중 보건국 소속 전염병 학자 샤메즈 라다니 박사는 "초기 연구 결과 T세포 반응이 항체 반응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면역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밍엄 대학의 폴 모스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감염 6개월 뒤에도 세포성 면역 반응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낸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또는 4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23명의 남성과 77명의 여성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만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

연구진은 유증상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활발한 T세포 반응이 재감염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무증상 환자는 상당한 수준의 면역 반응 없이도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모스 교수는 "앞으로 증상이 있던 환자들의 재감염률이 실제로 더 낮은지 확인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설명,

코로나19, 재감염 가능할까?

관련 기사 더 보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 항체면역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코로나19: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후 면역력이 6개월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염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유증상 환자들의 T세포(면역세포) 반응이 무증상 환자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높은 T세포 반응이 코로나19 재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연구를 진행한 영국 연구팀은 코로나19 면역에 대해 알아가야 할 것이 아직 많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재감염의 위험성은 없어지는지, 또 면역력은 얼마나 지속되는 지가 핵심 연구 과제다.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인체 감염을 막는 항체는 감염 10일 정도 이후에 생성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코로나19: '면역 여권'이 '항체 금수저' 계층 만들까?

연구진은 또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세포성 면역반응'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면역력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영국 공중보건국과 버밍엄 대학, NIHR 맨체스터 의학 연구 센터, 영국 코로나바이러스 면역학 컨소시엄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치거나 학술지에 발표된 바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T세포가 항체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SARS-CoV-2 바이러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SARS-CoV-2 바이러스

공중 보건국 소속 전염병 학자 샤메즈 라다니 박사는 "초기 연구 결과 T세포 반응이 항체 반응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면역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밍엄 대학의 폴 모스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감염 6개월 뒤에도 세포성 면역 반응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낸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또는 4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23명의 남성과 77명의 여성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만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

연구진은 유증상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활발한 T세포 반응이 재감염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무증상 환자는 상당한 수준의 면역 반응 없이도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모스 교수는 "앞으로 증상이 있던 환자들의 재감염률이 실제로 더 낮은지 확인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설명,

코로나19, 재감염 가능할까?

관련 기사 더 보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 항체면역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코로나19: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후 면역력이 6개월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염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유증상 환자들의 T세포(면역세포) 반응이 무증상 환자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높은 T세포 반응이 코로나19 재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연구를 진행한 영국 연구팀은 코로나19 면역에 대해 알아가야 할 것이 아직 많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재감염의 위험성은 없어지는지, 또 면역력은 얼마나 지속되는 지가 핵심 연구 과제다.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인체 감염을 막는 항체는 감염 10일 정도 이후에 생성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코로나19: '면역 여권'이 '항체 금수저' 계층 만들까?

연구진은 또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세포성 면역반응'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면역력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영국 공중보건국과 버밍엄 대학, NIHR 맨체스터 의학 연구 센터, 영국 코로나바이러스 면역학 컨소시엄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치거나 학술지에 발표된 바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T세포가 항체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SARS-CoV-2 바이러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SARS-CoV-2 바이러스

공중 보건국 소속 전염병 학자 샤메즈 라다니 박사는 "초기 연구 결과 T세포 반응이 항체 반응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면역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밍엄 대학의 폴 모스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감염 6개월 뒤에도 세포성 면역 반응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낸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또는 4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23명의 남성과 77명의 여성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만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

연구진은 유증상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활발한 T세포 반응이 재감염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무증상 환자는 상당한 수준의 면역 반응 없이도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모스 교수는 "앞으로 증상이 있던 환자들의 재감염률이 실제로 더 낮은지 확인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설명,

코로나19, 재감염 가능할까?

관련 기사 더 보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 항체면역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코로나19: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후 면역력이 6개월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염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유증상 환자들의 T세포(면역세포) 반응이 무증상 환자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높은 T세포 반응이 코로나19 재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연구를 진행한 영국 연구팀은 코로나19 면역에 대해 알아가야 할 것이 아직 많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재감염의 위험성은 없어지는지, 또 면역력은 얼마나 지속되는 지가 핵심 연구 과제다.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인체 감염을 막는 항체는 감염 10일 정도 이후에 생성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코로나19: '면역 여권'이 '항체 금수저' 계층 만들까?

연구진은 또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세포성 면역반응'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면역력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영국 공중보건국과 버밍엄 대학, NIHR 맨체스터 의학 연구 센터, 영국 코로나바이러스 면역학 컨소시엄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치거나 학술지에 발표된 바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T세포가 항체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SARS-CoV-2 바이러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SARS-CoV-2 바이러스

공중 보건국 소속 전염병 학자 샤메즈 라다니 박사는 "초기 연구 결과 T세포 반응이 항체 반응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면역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밍엄 대학의 폴 모스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감염 6개월 뒤에도 세포성 면역 반응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낸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또는 4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23명의 남성과 77명의 여성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만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

연구진은 유증상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활발한 T세포 반응이 재감염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무증상 환자는 상당한 수준의 면역 반응 없이도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모스 교수는 "앞으로 증상이 있던 환자들의 재감염률이 실제로 더 낮은지 확인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설명,

코로나19, 재감염 가능할까?

관련 기사 더 보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 항체면역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코로나19: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후 면역력이 6개월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염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유증상 환자들의 T세포(면역세포) 반응이 무증상 환자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높은 T세포 반응이 코로나19 재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연구를 진행한 영국 연구팀은 코로나19 면역에 대해 알아가야 할 것이 아직 많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재감염의 위험성은 없어지는지, 또 면역력은 얼마나 지속되는 지가 핵심 연구 과제다.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인체 감염을 막는 항체는 감염 10일 정도 이후에 생성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코로나19: '면역 여권'이 '항체 금수저' 계층 만들까?

연구진은 또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세포성 면역반응'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면역력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영국 공중보건국과 버밍엄 대학, NIHR 맨체스터 의학 연구 센터, 영국 코로나바이러스 면역학 컨소시엄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치거나 학술지에 발표된 바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T세포가 항체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SARS-CoV-2 바이러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SARS-CoV-2 바이러스

공중 보건국 소속 전염병 학자 샤메즈 라다니 박사는 "초기 연구 결과 T세포 반응이 항체 반응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면역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밍엄 대학의 폴 모스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감염 6개월 뒤에도 세포성 면역 반응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낸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또는 4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23명의 남성과 77명의 여성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만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

연구진은 유증상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활발한 T세포 반응이 재감염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무증상 환자는 상당한 수준의 면역 반응 없이도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모스 교수는 "앞으로 증상이 있던 환자들의 재감염률이 실제로 더 낮은지 확인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설명,

코로나19, 재감염 가능할까?

관련 기사 더 보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 항체면역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코로나19: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후 면역력이 6개월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염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유증상 환자들의 T세포(면역세포) 반응이 무증상 환자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높은 T세포 반응이 코로나19 재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연구를 진행한 영국 연구팀은 코로나19 면역에 대해 알아가야 할 것이 아직 많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재감염의 위험성은 없어지는지, 또 면역력은 얼마나 지속되는 지가 핵심 연구 과제다.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인체 감염을 막는 항체는 감염 10일 정도 이후에 생성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코로나19: '면역 여권'이 '항체 금수저' 계층 만들까?

연구진은 또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세포성 면역반응'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면역력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영국 공중보건국과 버밍엄 대학, NIHR 맨체스터 의학 연구 센터, 영국 코로나바이러스 면역학 컨소시엄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치거나 학술지에 발표된 바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T세포가 항체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SARS-CoV-2 바이러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SARS-CoV-2 바이러스

공중 보건국 소속 전염병 학자 샤메즈 라다니 박사는 "초기 연구 결과 T세포 반응이 항체 반응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면역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밍엄 대학의 폴 모스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감염 6개월 뒤에도 세포성 면역 반응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낸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또는 4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23명의 남성과 77명의 여성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만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

연구진은 유증상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활발한 T세포 반응이 재감염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무증상 환자는 상당한 수준의 면역 반응 없이도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모스 교수는 "앞으로 증상이 있던 환자들의 재감염률이 실제로 더 낮은지 확인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설명,

코로나19, 재감염 가능할까?

관련 기사 더 보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 항체면역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코로나19: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후 면역력이 6개월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염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유증상 환자들의 T세포(면역세포) 반응이 무증상 환자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높은 T세포 반응이 코로나19 재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연구를 진행한 영국 연구팀은 코로나19 면역에 대해 알아가야 할 것이 아직 많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재감염의 위험성은 없어지는지, 또 면역력은 얼마나 지속되는 지가 핵심 연구 과제다.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인체 감염을 막는 항체는 감염 10일 정도 이후에 생성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코로나19: '면역 여권'이 '항체 금수저' 계층 만들까?

연구진은 또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세포성 면역반응'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면역력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영국 공중보건국과 버밍엄 대학, NIHR 맨체스터 의학 연구 센터, 영국 코로나바이러스 면역학 컨소시엄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치거나 학술지에 발표된 바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T세포가 항체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SARS-CoV-2 바이러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SARS-CoV-2 바이러스

공중 보건국 소속 전염병 학자 샤메즈 라다니 박사는 "초기 연구 결과 T세포 반응이 항체 반응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면역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밍엄 대학의 폴 모스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감염 6개월 뒤에도 세포성 면역 반응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낸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또는 4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23명의 남성과 77명의 여성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만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

연구진은 유증상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활발한 T세포 반응이 재감염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무증상 환자는 상당한 수준의 면역 반응 없이도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모스 교수는 "앞으로 증상이 있던 환자들의 재감염률이 실제로 더 낮은지 확인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설명,

코로나19, 재감염 가능할까?

관련 기사 더 보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 항체면역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코로나19: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후 면역력이 6개월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염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유증상 환자들의 T세포(면역세포) 반응이 무증상 환자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높은 T세포 반응이 코로나19 재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연구를 진행한 영국 연구팀은 코로나19 면역에 대해 알아가야 할 것이 아직 많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재감염의 위험성은 없어지는지, 또 면역력은 얼마나 지속되는 지가 핵심 연구 과제다.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인체 감염을 막는 항체는 감염 10일 정도 이후에 생성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코로나19: '면역 여권'이 '항체 금수저' 계층 만들까?

연구진은 또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세포성 면역반응'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면역력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영국 공중보건국과 버밍엄 대학, NIHR 맨체스터 의학 연구 센터, 영국 코로나바이러스 면역학 컨소시엄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치거나 학술지에 발표된 바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T세포가 항체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SARS-CoV-2 바이러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SARS-CoV-2 바이러스

공중 보건국 소속 전염병 학자 샤메즈 라다니 박사는 "초기 연구 결과 T세포 반응이 항체 반응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면역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밍엄 대학의 폴 모스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감염 6개월 뒤에도 세포성 면역 반응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낸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또는 4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23명의 남성과 77명의 여성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만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

연구진은 유증상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활발한 T세포 반응이 재감염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무증상 환자는 상당한 수준의 면역 반응 없이도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모스 교수는 "앞으로 증상이 있던 환자들의 재감염률이 실제로 더 낮은지 확인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설명,

코로나19, 재감염 가능할까?

관련 기사 더 보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 항체면역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코로나19: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후 면역력이 6개월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염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유증상 환자들의 T세포(면역세포) 반응이 무증상 환자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높은 T세포 반응이 코로나19 재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연구를 진행한 영국 연구팀은 코로나19 면역에 대해 알아가야 할 것이 아직 많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재감염의 위험성은 없어지는지, 또 면역력은 얼마나 지속되는 지가 핵심 연구 과제다.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인체 감염을 막는 항체는 감염 10일 정도 이후에 생성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코로나19: '면역 여권'이 '항체 금수저' 계층 만들까?

연구진은 또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세포성 면역반응'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면역력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영국 공중보건국과 버밍엄 대학, NIHR 맨체스터 의학 연구 센터, 영국 코로나바이러스 면역학 컨소시엄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치거나 학술지에 발표된 바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T세포가 항체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SARS-CoV-2 바이러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SARS-CoV-2 바이러스

공중 보건국 소속 전염병 학자 샤메즈 라다니 박사는 "초기 연구 결과 T세포 반응이 항체 반응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면역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밍엄 대학의 폴 모스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감염 6개월 뒤에도 세포성 면역 반응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낸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또는 4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23명의 남성과 77명의 여성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만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

연구진은 유증상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활발한 T세포 반응이 재감염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무증상 환자는 상당한 수준의 면역 반응 없이도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모스 교수는 "앞으로 증상이 있던 환자들의 재감염률이 실제로 더 낮은지 확인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설명,

코로나19, 재감염 가능할까?

관련 기사 더 보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 항체면역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코로나19: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후 면역력이 6개월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염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유증상 환자들의 T세포(면역세포) 반응이 무증상 환자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높은 T세포 반응이 코로나19 재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연구를 진행한 영국 연구팀은 코로나19 면역에 대해 알아가야 할 것이 아직 많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재감염의 위험성은 없어지는지, 또 면역력은 얼마나 지속되는 지가 핵심 연구 과제다.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인체 감염을 막는 항체는 감염 10일 정도 이후에 생성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코로나19: '면역 여권'이 '항체 금수저' 계층 만들까?

연구진은 또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세포성 면역반응'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면역력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영국 공중보건국과 버밍엄 대학, NIHR 맨체스터 의학 연구 센터, 영국 코로나바이러스 면역학 컨소시엄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치거나 학술지에 발표된 바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T세포가 항체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SARS-CoV-2 바이러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SARS-CoV-2 바이러스

공중 보건국 소속 전염병 학자 샤메즈 라다니 박사는 "초기 연구 결과 T세포 반응이 항체 반응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면역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밍엄 대학의 폴 모스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감염 6개월 뒤에도 세포성 면역 반응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낸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또는 4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23명의 남성과 77명의 여성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만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

연구진은 유증상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활발한 T세포 반응이 재감염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무증상 환자는 상당한 수준의 면역 반응 없이도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모스 교수는 "앞으로 증상이 있던 환자들의 재감염률이 실제로 더 낮은지 확인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설명,

코로나19, 재감염 가능할까?

관련 기사 더 보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 항체면역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코로나19: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후 면역력이 6개월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염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유증상 환자들의 T세포(면역세포) 반응이 무증상 환자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높은 T세포 반응이 코로나19 재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연구를 진행한 영국 연구팀은 코로나19 면역에 대해 알아가야 할 것이 아직 많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재감염의 위험성은 없어지는지, 또 면역력은 얼마나 지속되는 지가 핵심 연구 과제다.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인체 감염을 막는 항체는 감염 10일 정도 이후에 생성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코로나19: '면역 여권'이 '항체 금수저' 계층 만들까?

연구진은 또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세포성 면역반응'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면역력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영국 공중보건국과 버밍엄 대학, NIHR 맨체스터 의학 연구 센터, 영국 코로나바이러스 면역학 컨소시엄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치거나 학술지에 발표된 바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T세포가 항체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SARS-CoV-2 바이러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SARS-CoV-2 바이러스

공중 보건국 소속 전염병 학자 샤메즈 라다니 박사는 "초기 연구 결과 T세포 반응이 항체 반응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면역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밍엄 대학의 폴 모스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감염 6개월 뒤에도 세포성 면역 반응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낸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또는 4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23명의 남성과 77명의 여성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만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

연구진은 유증상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활발한 T세포 반응이 재감염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무증상 환자는 상당한 수준의 면역 반응 없이도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모스 교수는 "앞으로 증상이 있던 환자들의 재감염률이 실제로 더 낮은지 확인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설명,

코로나19, 재감염 가능할까?

관련 기사 더 보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 항체면역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코로나19: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후 면역력이 6개월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염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유증상 환자들의 T세포(면역세포) 반응이 무증상 환자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높은 T세포 반응이 코로나19 재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연구를 진행한 영국 연구팀은 코로나19 면역에 대해 알아가야 할 것이 아직 많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재감염의 위험성은 없어지는지, 또 면역력은 얼마나 지속되는 지가 핵심 연구 과제다.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인체 감염을 막는 항체는 감염 10일 정도 이후에 생성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코로나19: '면역 여권'이 '항체 금수저' 계층 만들까?

연구진은 또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세포성 면역반응'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면역력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영국 공중보건국과 버밍엄 대학, NIHR 맨체스터 의학 연구 센터, 영국 코로나바이러스 면역학 컨소시엄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치거나 학술지에 발표된 바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T세포가 항체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SARS-CoV-2 바이러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SARS-CoV-2 바이러스

공중 보건국 소속 전염병 학자 샤메즈 라다니 박사는 "초기 연구 결과 T세포 반응이 항체 반응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면역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밍엄 대학의 폴 모스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감염 6개월 뒤에도 세포성 면역 반응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낸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또는 4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23명의 남성과 77명의 여성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만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

연구진은 유증상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활발한 T세포 반응이 재감염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무증상 환자는 상당한 수준의 면역 반응 없이도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모스 교수는 "앞으로 증상이 있던 환자들의 재감염률이 실제로 더 낮은지 확인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설명,

코로나19, 재감염 가능할까?

관련 기사 더 보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 항체면역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코로나19: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후 면역력이 6개월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염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유증상 환자들의 T세포(면역세포) 반응이 무증상 환자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높은 T세포 반응이 코로나19 재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연구를 진행한 영국 연구팀은 코로나19 면역에 대해 알아가야 할 것이 아직 많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재감염의 위험성은 없어지는지, 또 면역력은 얼마나 지속되는 지가 핵심 연구 과제다.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인체 감염을 막는 항체는 감염 10일 정도 이후에 생성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코로나19: '면역 여권'이 '항체 금수저' 계층 만들까?

연구진은 또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세포성 면역반응'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면역력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영국 공중보건국과 버밍엄 대학, NIHR 맨체스터 의학 연구 센터, 영국 코로나바이러스 면역학 컨소시엄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치거나 학술지에 발표된 바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T세포가 항체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SARS-CoV-2 바이러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SARS-CoV-2 바이러스

공중 보건국 소속 전염병 학자 샤메즈 라다니 박사는 "초기 연구 결과 T세포 반응이 항체 반응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면역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밍엄 대학의 폴 모스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감염 6개월 뒤에도 세포성 면역 반응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낸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또는 4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23명의 남성과 77명의 여성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만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

연구진은 유증상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활발한 T세포 반응이 재감염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무증상 환자는 상당한 수준의 면역 반응 없이도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모스 교수는 "앞으로 증상이 있던 환자들의 재감염률이 실제로 더 낮은지 확인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설명,

코로나19, 재감염 가능할까?

관련 기사 더 보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 항체면역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코로나19: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후 면역력이 6개월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염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유증상 환자들의 T세포(면역세포) 반응이 무증상 환자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높은 T세포 반응이 코로나19 재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연구를 진행한 영국 연구팀은 코로나19 면역에 대해 알아가야 할 것이 아직 많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재감염의 위험성은 없어지는지, 또 면역력은 얼마나 지속되는 지가 핵심 연구 과제다.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인체 감염을 막는 항체는 감염 10일 정도 이후에 생성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

코로나19: '면역 여권'이 '항체 금수저' 계층 만들까?

연구진은 또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세포성 면역반응'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면역력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영국 공중보건국과 버밍엄 대학, NIHR 맨체스터 의학 연구 센터, 영국 코로나바이러스 면역학 컨소시엄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치거나 학술지에 발표된 바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T세포가 항체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SARS-CoV-2 바이러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SARS-CoV-2 바이러스

공중 보건국 소속 전염병 학자 샤메즈 라다니 박사는 "초기 연구 결과 T세포 반응이 항체 반응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면역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밍엄 대학의 폴 모스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감염 6개월 뒤에도 세포성 면역 반응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낸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또는 4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23명의 남성과 77명의 여성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만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

연구진은 유증상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활발한 T세포 반응이 재감염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무증상 환자는 상당한 수준의 면역 반응 없이도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모스 교수는 "앞으로 증상이 있던 환자들의 재감염률이 실제로 더 낮은지 확인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설명,

코로나19, 재감염 가능할까?

관련 기사 더 보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 항체면역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코로나19: 혹시 나도 '숨은 감염자'일까?